

민주 임순남 지역위원장 선출 앞두고 내홍

'책임론' 다시 불거져

더불어민주당 사교 지역구로 지난 2년간 공약이던 전북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 선출 공보가 마무리된 가운데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과 이강래 전 국회의원의 사교지역위원회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책임론은 두 사람의 갈등으로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가 내부에 휘말렸고 또 이러한 내분이 결국 두 번에 걸쳐 국민의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용호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자리를 내준 꼴이 되버렸다는 것이다.

28일 민주당 등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는 최근에도 이강래 전 의원과 박희승 전 위원장으로 쪼개져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다.

남원·임실·순창은 이강래 전 의원이 16·17·18대 내리 3선을 한 곳이다.

이 전 의원은 이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인 강동원 후보에게 패하며 4선 도전에 실패했으며 이후 20대에서는 서울 서대문에서 출마했으나 또 낙선했다.

박희승 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이 바뀌면서 인제영입 케이스로 발탁된 인사다.

20대 총선 당시 남·임·순 지역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강동달 전 의원과 강동원 전 의원이 총선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박희승 전 위원장이 합류하게 됐고 장영달·강동원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하면서 지역위원회가 균열되기 시작했다.

20대 총선에 임박해서 박희승 위원장이 단수후보로 결정되자 강동원 전 의원은 당을 박차고 나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했다.

결국 선거에서는 국민의당으로 출마한 이용호 후보가 당선됐다.

하계 무소속 후보의 승리를 안겼다. 결국 남원·임실·순창은 민주당이 19대부터 21대까지 모두 의석을 내준 호남 유일의 곳이 됐다.

이때부터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는 사교지역위원회가 됐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남·임·순창 지역위원회가 워낙 시끄러워 2년

박희승 전 위원장·이강래 전 의원 간 갈등 강동원·이용호 의원에 자리 내준 꼴'

박희승 후보는 3위로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지역위원장은 맡을 수 있었다.

21대 총선에서는 다시 귀향한 이강래 전 의원과 박희승 전 위원장이 경선을 치렀다. 이 과정이 너무 격렬해 당원들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강래 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박희승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하고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져분 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법원에서 가져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본선에서 이강래 후보에 대한 반발표가 이용호 후보로 몰렸다는 분석 속에 호남에서 유일

하게 가까이 지역위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지역위원장을 잘 뽑아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22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임·순 지역위원회 관계자도 "이번 지역위원장 선출을 통해 갈등이 봉합돼야 한다"며 "이강래 전 의원과 박희승 전 위원장은 이러한 갈등에 대한 상당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 공모에는 박희승 전 위원장과 이강래 전 의원을 비롯해 김원종 전 청와대 수석행정관과 이환주 남원시장 등 4명이 접수했다. /뉴시스

도내 경찰서 직장협 "경찰국 신설, 독재시대로 회귀"

"경찰위 내실화" 주장

전북지역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움직임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며 "경찰 심의 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견제라는 명목으로 주장하는 경찰 통제 방안은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경찰이 권력의 시너가 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의 인사 예산 감축 정책 권한을 통제하는 행안부 부령과 규칙 제정 추진은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법률인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경찰 내부에서 지휘부를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견제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 위상 강화, 대통령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및 공안직권 편입 이행 등도 요구했다.

박상욱 전북경찰직장협의회장은 "경찰국 설치는 결국 과거 독재정권으로 회귀한 것과 다를바 없다"며 "안 그래도 취약한 조직인데 이렇게 건드리면 치

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이 아닌 국가경찰 위원회를 통한 민간 위원의 권한 강화로 경찰을 통제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조직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 발전 책임자 될 것"

민주 양경숙 의원

전주를 지역위원장 출마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사교 지역구인 전북 전주를 지역위원장에 도전하며 "전주 발전의 책임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 의원은 28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전주를 지역위원회가 오랫동안 사교 지역위원회로 방치돼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전북의 정치 1번지 전주를 지역위원회의 무너진 자부심을 회복하고, 전주의 변화된 미래를 보여달라는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저는 전북에서 태어나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전주에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민생경제



예산재정 전문가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또 "이미 115억 6000만원의 전주 지역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대선에서 사교지역위원회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구 관리와 선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살려 전주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82.2% 득표의 눈부신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원동지와 전주시민 여러분의 민주당에 대한 진심 어린 격정과 사랑 그리고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전주를 지역위원회를 당원과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반드시 재탄생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뉴시스

민주 흥영표 의원

당대표 불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차기 당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흥영표 의원이 28일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흥 의원은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너져 내린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당의 기본 원칙인 책임정치, 당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북도의회는 2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제12대 전북도의회 의원 당선자 40명을 대상으로 의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12대 도의원 당선인들 "전북발전 앞장 다짐"

도의회, 의정설명회 열어 내달 1일 첫 회기 열고 개원식

전북도의회는 2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의원당선자 40명을 대상으로 의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자들 간 상견례에

이어 진병순 사무처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추진 상황 및 의회 운영현황 등을 청취했다.

당선자들은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 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으며 국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역할과 각오를 다졌다. 설명회를 마친 뒤 당선자들은 도의회 본회의장과 의원연구실, 도서자료실 등 의회 청사를 둘러봤다. 최찬욱 제11대 도의회 의장은 인사

말을 통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바람을 하나로 모아서 전북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제12대 도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2대 도의회 첫 회기를 열어 의정당을 선출한 뒤 이날 오후 3시 30분 개원식을 갖는다. /김영수 기자

"전북 예산 늘리고 민원해결 창구역할 할 것"

국힘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수석최고위원)이 전북을 찾아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지지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새로운 도지사 등과 지역 예산지원 확보에 더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28일 호남방문의 일환으로 전주를 찾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먼저 제8회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국민의힘 지지에 대해 감사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북도의회와 전주·군산·익산 시의회에 입성한 이수진, 천서영, 송영자, 윤세자 당선인과 자리를 함께했다.

조 최고위원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의 인연을 들려 전북에 대한 지원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과는 예전 김한길 당대표 비서실장을 하던 시절부터 인연이 있다"라며 "무엇보다도 젊은 도지사가 배출이 됐기 때문에 전북에 희망도 광장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당선인께서 3급 정책협력관 자리에 국민의힘 출신을 배려했다고 한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서울에 올라가 최고위원 회의 등에 많이 알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사진 오른쪽)이 28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조 최고위원은 "제가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는 여당의 지도부이자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고 특히 전북은 제가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어떤 민원 해결에 있어서 창구 역할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린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물론 지역 연구 국회

의원 등과 힘을 합쳐 전북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김관영 지사 당선인과는 취임 후 이 자리에 함께 와서 도민에게 인사를 다시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 후 무주군을 찾아 황인홍 무주군수와 만나 태권도사관학교 건립 등 현안과 수해 방재대책 등을 듣고 예산 지원을 논의했다. /김영수 기자

정읍·고창지역 국가예산 확보 간담회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 "기재부 단계 예산 확보 최선"

2023년 정읍·고창지역 국가예산 확보 간담회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과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과 전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정읍시 내장동 공공콜러센터 3층 강당에서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기재부 단계에 있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들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학수 당선인은 이날 총사업비 200억 중 100억원이 규모로 필요한 농축산융합물산산업공유 인프라 구축사업에 필요한 올해 반영분 5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윤준병 국회의원이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또 이 당선인은 기재부 단계의 △제약사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 △백신 전용 안전생량기 기반 구축 △금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보림지구 배수개선사업 △백운농지구 배수개선사업 △산의 원종산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을 설명하



고서 국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 당선인은 또 추가로 국가예산이 필요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읍 디지털미디어 문화유산 아트센터 사업 등 모두 68건에 1,061억원의 국가예산 사업과 요구에 따른 사업설명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윤준병 국회의원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논리와 필요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산변형에 필요한 논리개발에 힘써달라"고 이 당선인에게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민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 양보에도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재구성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회의장단 선출 등 단독 원구성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 운영원 원내대변인과 정동기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당을 찾아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회 소집요구서에는 당론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이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제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언제든 본회의는 열릴 수 있다"며 "그 전까지 우리는 국민의힘, 정부여당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전 부대표도 "지금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금리에 고통을 겪고유가까지 4대(高)가 산적해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길 바라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패싱하는 것처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회는 지금 국회의 일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